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 리를 뛴다

☞ A32면에서 계속

문에. 물방울 같은 그런 아주 좁쌀 같은 거, 또 하다못해 콩 같은 고런 거, 그냥 물질이 아닌 물질, 물방울 같은 게 그 덩어리를 돌면서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지원을 안 한다면 터져 버릴는지도 모르죠. 안에서는 안에대로 조절을 해서, 내면 내는 대로 복사체제로서 벌어지는 그 문제들이 들이고 내는 것을 완화되게 조절을 하죠. 통신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던가요. 우리네 마음은 수시로 이게 찰나찰나 바뀌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자동기입니다. 지금 어디 뭉쳐서 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동기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자동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자동기처럼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여여한 자동기인데도, 자동적으로 마음 내는 대로 살게끔 고등 동물로, 즉 인간이라는 만물의 영장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과거의 습 때문에 그냥 거기에다 마음이 자기를 옹쳐매 놓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갈 건데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대장부의 걸음걸이는 한 걸음을 뛰어도 천 리를 뛰는데, 졸장부의 걸음걸이는 백 리를 뛰어도 한 걸음 뛴 것만 못하니라.

여러분은 육신으로써 벌어먹으려고 돈을 좇아서 그냥 막 뛰는데, 느긋하게 앉아서 끌어도 다 붙어서 오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한 걸음을 뛰어도 뛰는 거지, 몸뚱이로 그걸 좇아서, 요만한 걸 보고 좇아서 그냥 뛰면 몸뚱이 고달프죠, 병생기죠, 집안 가족 잘 못 지키죠, 신경질이 나니깐 또 화목하지 못하죠. 일일이 손해야, 일일이 손해.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답답한 게 있죠. 그래 어떤 때는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도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날 위해서지.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또 둘이 아닌 까닭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내 형제 아님이 어딨고 내 부모 아님이 어디 있으며 내 자식 아님이 어딨습니까? 몸뚱이가 이 집 가서 한 철, 저 집 가서 한 철, 저기 가서 한 철, 자식이 됐다가 부모가 됐다가 형제가 됐다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어떤 게 내 부모라고 할까요? 어떤 게 또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부모는 그렇게 누구나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은데 어떤 게 내 부모라고 하고 어떤 게 내 자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부처님 조상과 그 육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까? 그러게 "부모은중경"에서도 그랬죠. 이 몸을, 응신할 수 있는 이 몸을 만들어 주시고 키워 주시고, 배 속에서부터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몸을 벗을 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모의 그 마음의 은혜! 모든 것을 한데 합치면 어떤 부모가 내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 넓은 마음!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의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친어머니도 내 부모라고 생각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라고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까요.

어떤 때는 학생들이 와서 그렇게 곤란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 내 마음은 내가 더 잘 아니깐요. 사람은 거짓된 마음이 없어야 하고 나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을 지킬 줄 아는 마음, 의리와 도의를 지키는 마음, 이 '마음, 마음, 마음, 마음' 모두가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마음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 자기 주인공을 믿는 마음은
> 올바르게 말하는 마음이며, 올바르게 생각하는 마음이며,
> 항상 나라는 조건을 녹여 버리는 마음입니다.
> 즉 말하자면 아집을 가진 마음을 놓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은 지금, 새로이 지금 부처님이 써 놓으신 경서를 뒤집어 보면, 현재 과학이 발달되고 모든 게 과학적으로 가고, 지금 자동기로서 물질이 돼 있듯이 여러분도 자동적으로 돼 있고, 자동적으로 돌아가고, 자동적으로 혹성이 돌아가고, 별성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는 공부인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처럼 먹고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영령들, 그저 냄새나 맡고 사는 생명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으로 사는 생명들이 있다 이겁니다. 마음으로 사는 세계, 냄새 맡고 사는 세계, 먹고 사는 세계 이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깨달은 사람은 마음으로 살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냄새를 맡고 산다. 죽은 영령들도 냄새를 맡고 살기 때문에 시식을 지내 준다는 둥 천도를 해 준다는 둥 온통 이 야단이 나는 거지. 현실에서 자유자재하고 살면서 그 의식을 다 떠났을 때는 그건 죽어도 마음대로 자유자재야.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살지, 냄새나 맡고 돌아다니면서 지지하게 살지 않는단 말이지.

이렇게 곧바로 얘기해 주는 것은,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내가 지금 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살면은 보고 듣고 다 할 줄 알고, 나 아님이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통과야. 통과, 통과, 통과야. 그러니깐 표현하자면 주장자 하나 딱 들면, 똥그란 것이 하나 거기 얹혀 있는 셈이나 한가지니, 이거를 들면 그대로, 그대로 통과야, 다, 그냥. 아무 데고 다 통과라.

그런 데다 또 한 가지 묘한 것은 옛날에 어느 사람이 참 부유하게 살았는데 어떻게나 욕심이 많은지 남의 것을 그냥 뺏어 먹으려고만 해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아휴,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아주. 저기 어떤 사람 있어요. (대중 웃음) 남의 것도요, 돈을 꿔 줄 때에 삼십억짜리면 한 삼천만 원 꿔주고서요, 몇 해를 끌다가 나중엔 결국 제 걸로 만들어요. 그래 가지고 그냥 어떡하든지 소송을 걸어서까지도 그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애쓰죠. 그렇게 남의 걸 뺏어서 재산을 많이 모으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악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악종이냐 선종이냐, 이런 걸 놓고 볼 때 선(禪)에는 악종도 없고 선종도 없다 이러지마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세계는 악종도 있고 선종도 있는데, 악종은 선종을 집어먹어요. 그러니까 선종이 도리를 모르면은 무의식중에 그냥 끌려가요. 끌려가서 악종에게 먹혀요.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그냥 끌려서 그 입속으로 다 들어가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은 선종의 입을 벌리면 모든 악의 조건과 악종이 전부 선종의 입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그 불바퀴에 굴러서 나오게 되면 그냥 천도가 되는 거죠. 그냥 마음이 그렇게 안이하게 되고, 악 종류였었는데, 그 불씨로서 자비한 마음을 닮아서 체인지가 되어 가지곤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건질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렇게 악종으로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악 두목이 돼 버렸어요, 죽어서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모든 한 생각이 악이니까, 악 씨가 그냥 수만 개 헤아릴 수도 없이 나와서 어느 동네, 어느 나라를 덮쳤단 말입니다. 덮쳐 가지고는 그냥 막, 말하자면 그 영력의 피를 그냥 빠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쓰러져요. 모두 병들어서 쓰러지는 것처럼 타서 쓰러지고, 어디 가서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게 그냥 막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웃 나라, 그럼 중국이라고 합시다. 그래 이웃 나라 중국에서 가만히 보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막 그렇게 악종이 일어나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종류를 보지를 못해. 왜, 반짝반짝하면서 돌아다니는 벌레 있죠? 그게 뭐라고 그러죠? 반딧불이, 반딧불이처럼 보이면서 사람 속에만 들어갔다 하면 그게 그렇게 되더라 이거죠.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있는 거지 없는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 과학적이 지금 이 현상 세계고 바로 우리 사는 이치니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이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큰 돌 속에다가 자그마한 돌을 넣어서 벌려 가지고 그 자력으로써 다 끌어들인 거죠. 안 그럴까요? 그건 물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돌 속에다가 다 가둬 놨단 말입니다. 가둬서는 깊은 물속에다 탁 쳐넣어 버렸어. 그러니깐 왜, 꽃이 시들었다 물을 주면은 피어나듯이 그렇게 선종이 피어난 겁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죠. 노스트라다무스도 그러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동네가 괴질로 인해서 다 타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이러는 동네에 들어갔는데도 수십만 명을 다 건졌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탁 닫아서는 천길만길 물속에다가 가둬 넣어 놓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아닌 반딧불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이 악의 씨죠. 그것을 전부 가두어 놓으니까 그 화초에 물을 줘서 살아나듯이 그 사람네들이 모두 생기를 되찾고 살아나거든요. 그러고는 그냥 타서 흠집이 났던 것도 자동적으로 꾸덕꾸덕해지고 낫고 말이야. 그분이 또 겉으로는 전부 약을 발라 주고 다니면서 다 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건 도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십니다. 나도 그건 압니다. 그러나 도가 있기 이전에, 도를 찾으려고 하기 이전에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앞에 있는 걸 해결을 하고 넘어가라 이거야. 앞에 닥치는 거를 마다하고 큰 거를 잡으려고 뛰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고 말죠, 도를 얻기 보다도.

그래서 도를 찾는다, 도를 이룬다 이러기 이전에 사람 노릇을 한다면,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하고 내 형제같이 생각하고, 길에 지나가다가 죽으러 가는 소 한 마리를 본다 하더라도, 그 소 하나도 '너의 육신이 소니까 사람한테 그 고기를 먹히고 너는 인간으로 환토를 해야지.' 하고서, 그 소 마음을 내 마음속에 탁 넣으면 소가 내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전부 알아 버려요. 그러니깐 소가 이건 금방 사람이 돼 버려요. 금방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찰나에 사람이 됐어. 육신만 없다 뿐이지. 육신은 가, 지금. 의식을 빼 놓으면 소는 아프지도 않아. 큰 돌 같은 망치로 때려도 아프지도 않아. 그건 고깃덩어리이기 때문이야. 의식을 빼니까, 마취한 거와 같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지 않게 하면서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모습만 각각이지 그 마음이야, 슬픈 마음이야 어찌 둘이겠느냐 이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갈 때에 그 마음이나 소가 죽으러 가는 그 마음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 소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한데 넣었을 때 두드러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의식이 내가 알고 있는 의식을 다 알아 버리니까 그냥 내가 된 거죠. 내가 돼서 내가 또 좋은 데로 천도해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서 일깨나 하게끔 딱 천도를 해서 내놓으면 어디 가서 금방 태어나게 되죠. 임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 그 큰 눈으로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감사하게 둘이 아니게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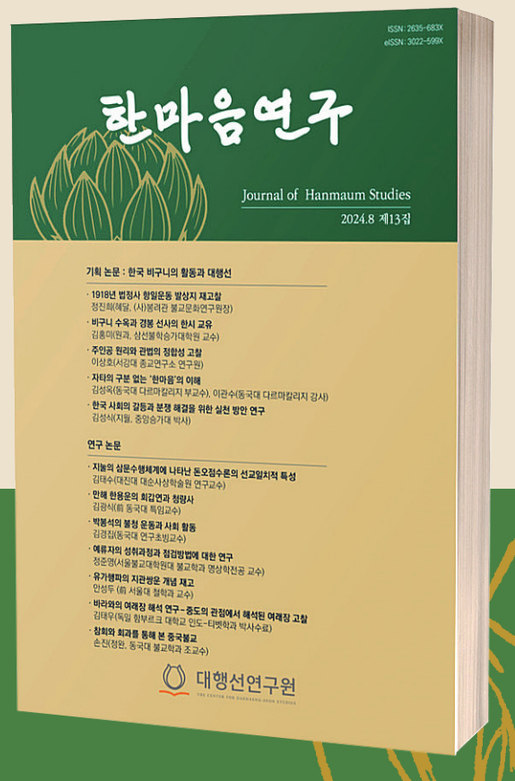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0년 1월 21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2025 을사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 학술지 「한마음연구」 KCI 등재학술지 선정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2024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성과는 양질의 논문을 투고해 주신 연구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마음연구」는 앞으로도 〈대행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불교학 발전에 이바지하며,
많은 이들에 두루 이익이 되는 학술연구지가 되도록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논문투고안내

- 모집 기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행 예정 : 제14집, 2025년 2월 28일)
- 발행 주기 : 연 2회 (2월, 8월)
- 특 전 : 게재 논문에 소정의 원고료 지급 (논문 사사표기료, 회원가입비, 심사비 없음)
- 홈페이지 : www.daehaeng.re.kr
- 문의 메일 : myogong@daehaeng.org (대표메일이 변경됩니다.)

「한마음연구」에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립니다.

대행선연구원 THE CENTER FOR DAEHAENG-SEON STUDIES 일동 합장